

초안

살아있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커뮤 서칭

1.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263,815명 2011년 개설)

[자유로운 이야기>부부관계에 대해서 2025.09.19](#)

내용이 민감해 삭제했다고는 하나, 댓글 추론. 부부관계 때문에 조건만남하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말한 듯. 혹은 아내가 조건을 뒀는건가? 부부관계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준듯.

그 외에도 제목+댓글에 “섹스”검색하면 월에 1개정도씩은 올라오는 듯.
하지만 그리 양질의데이터는 아닌 듯.

2. 부부블라 어플

으악 해킹당하는거같다.. 검은화면만 뜸

gemini 커뮤추천

운동/취미/커뮤니티

재테크/부동산/스터디

명품/코디/다이어트 인증

맘카페/학군

네이버 카페검색란에 그냥 섹스 검색

이혼에서 재혼까지 이재모

[유부녀들도 바깥에서 남자를 만날때 단순 섹스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 되려 싱글보다 더한 "사랑"을 원한다.](#)

[상대의 성욕에 고삐와 목줄을 죄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

이거다!!!!!!!!!!!!!!!!!!!!!!

[내 남자가 다가오는 기술](#)

오늘 하루만 섹스글 9개! 그런데 방문 수 제한 때문에 내일 봐야할듯.

73619	[섹스기술공금] 궁금해요! ㉠	정위니야아아 ㉠	21:23	14
73617	[섹스리스] 잘부탁드립니다 ㉠	17cm ㉠	17:24	18
73616	[섹스스쿨] 섹스를 못하면 생기는 일들 ㉠ ㉠	질 좋은 관계 연구소 ㉠	15:35	75
73614	[섹스기술공금] 배우고 싶어요 ㉠	들지맛지 ㉠	15:13	1
73613	[섹스기술공금] 배울래요 [1] ㉠	테니스왕자자 ㉠	14:52	6
73611	[섹스기술공금] 배우고싶어요! [3] ㉠	루시유 ㉠	11:53	2
73608	곰vs여우 [7] ㉠	초코미 ㉠	09:54	286
73607	[섹스기술공금] 배우고싶어서 가입했어요 ㉠	8로또8 ㉠	08:24	7
73606	[섹스기술공금] 섹스 기술 공금 [1] ㉠	강이바보 ㉠	06:43	25
73605	[섹스기술공금] 반갑습니다 [1] ㉠	율리mum ㉠	02:40	16
73603	섹스리스 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9] ㉠	녹차라떼한잔 ㉠	2025.11.08.	262
73602	성교중 ㉠	진기 ㉠	2025.11.08.	79
73600	발기부전남편 흥분시키려면요.. [12]	바르바 ㉠	2025.11.08.	695
73598	[섹스기술공금] 섹스기술공금	생각하지마 ㉠	2025.11.08.	23
73597	[섹스기술공금] 섹스기술공금	마미요 ㉠	2025.11.08.	23

4. 연애, 신혼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소극적이었어요.그래서 지금 모든것이 궁금해요

5. 고민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카페를 통해서 배워보고싶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명기래요"

<https://cafe.naver.com/minazoa/57134>

"섹스리스5년. 드디어 섹스를 시작하다"

<https://cafe.naver.com/minazoa/44985>

"상간녀보다 내가 더 맛있대요"

<https://cafe.naver.com/minazoa/44748>

"업소 마사지로 남편 흥분보냈어요"

<https://cafe.naver.com/minazoa/47567>

"발기부전 남편이 나에게 사정이 되었어요"

<https://cafe.naver.com/minazoa/57767>

"오르가슴 레벨업 극강의 쏘임"

<https://cafe.naver.com/minazoa/56519>

어질어질하다

가설 수립 및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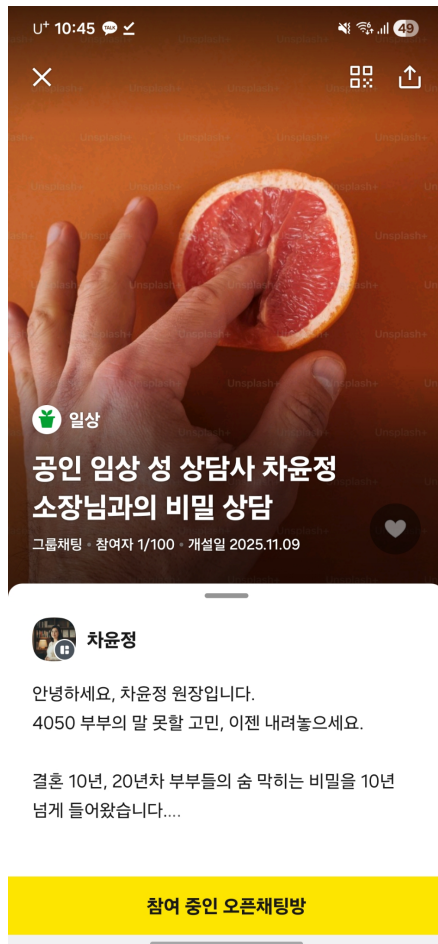
가설1: 10%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내 남자가 다가오는 기술'에 가입한 섹스리스 아내들은 강의 구독 전 사전상담 비용에 5만원을 지출할 것이다. [수업신청서서](#)

↳ 글을 못봐서 실패.. 방문1회

솔루션 아이디어션

유튜브는 좀 아닌거같음. 네이버 카페, 사이트, 오픈채팅 이용해서 사람들을 한번 꼬셔보자
페이지도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글 설문지로 링크 달고 그 링크를 엄청난 전문가가 하는 것 처럼
광고를 돌려버리던지.. 돈내는 걸로. 그리고 연령대 분석! 아예 모든걸 맡겨버리는거지..



브레인스토밍 251123

너무 같혀있는거일수도.

약간 엄청난 자료조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자몽이 먹고싶는데 가급적 국내산이 좋아서 찾아봤더니 없더라 라는 말이 좀 충격.

“?%의 자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내산 제품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이다” 이런 식의 정말 간단한 접근 자체를 코코네에서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음.

코코네에 있을 때의 장단점 중 단점으로는 선배들의 발자취, 교수님들의 발자취들에 대한 영향을 받다보니 1차원 적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음.

우리가 노리는 시장은 섹스리스니까, 조금단순하게 최대한 1차원적으로 자료조사 없이 그냥 브레인 스토밍 해보겠음.

섹스리스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 실제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섹스리스라고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한 사람들을 타게팅 하는거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조금 젊다고 생각하면 40대? 결혼하고 신혼 보내고 조금 사그라들 40대 중반정도가 될 것 같음.

남자가 관계를 원한다고 가정.

Q1. 그 사람들은 왜 당사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커뮤니티에서 한탄하고 있을까?

A1.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번 말해봤지만 일시적인 변화가 있을 지언정 지속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

Q2. 왜 변화가 일시적일까?

A2. 말하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금방 말하지 않게되는 순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Q3. 왜 말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A3. 기본적으로 아내 입장에서 득이되는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Q4. 왜 아내 입장에서 득이 되는게 없다고 생각할까?

A4. 피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신경써야하는게 많은 동 자기 자신의 몸 건강 상태가 애초에 좋지 않거나 평소에도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Q5. 왜 평소에도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편일까?

A5. 남편이 평소에 아내의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Q6.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의미 전달을 왜 하지 못할까?

A6.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섹스하자고만 하기 때문에

pain point: 남편이 아내의 건강이나 몸 상태를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내는 섹스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What? 남편은 아내의 몸상태를 비롯한 건강을 신경써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모습이 아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How? 남편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쉬운 생리 달력 만들기. 아내랑 같이 작성하기보다도 남편이 작성해야함.

참고문헌

“최근 여성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회활동의 기회가 증가하여 부부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변화하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상호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 “결혼생활이 부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94,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건사회논집, Vol.14, No.1, pp.111-125,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176/journal-14-1-111.pdf>